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접속사 when절의 번역유형과
어순에 관한 연구



2011년 2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김 효 성

문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접속사 when절의 번역유형과
어순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김 은 일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2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김 효 성

김효성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1년 2월 25일



주 심 영어학박사 전 춘 배 (인)

위 원 영어학박사 배 재 덕 (인)

위 원 언어학박사 김 은 일 (인)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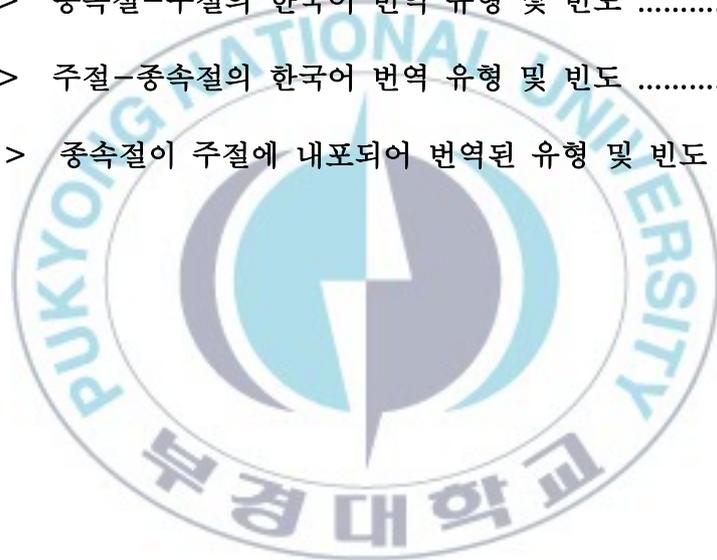
Abstract	iv
I. 서 론	1
II. 이론적 배경	5
2.1 정보성	5
2.2 정보성과 어순	6
III. 시간접속사 when의 영한 번역	9
3.1 when의 번역 상당 어구	10
3.1.1 어미	12
3.1.2 명사	19
3.1.3 관형절	23
3.1.4 부사	25
3.1.5 생략	26

3.2 주절과 종속절 어순	27
3.2.1 종속절-주절 어순	29
3.2.2 주절-종속절 어순	32
3.2.3 종속절이 주절에 내포	37
IV. 결 론	40
참고 문헌	42



표 목 차

<표 1> when의 번역 상당 어구 유형 및 빈도	12
<표 2> 어미의 번역 상당 어구 및 빈도	13
<표 3> 영어 주절과 종속절의 어순 유형 및 빈도	29
<표 4> 종속절-주절의 한국어 번역 유형 및 빈도	29
<표 5> 주절-종속절의 한국어 번역 유형 및 빈도	32
<표 6> 종속절이 주절에 내포되어 번역된 유형 및 빈도	38



Translations of Subordinator 'When' and
the Order of the Subordinate Clauses

Kim Hyo Sung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discuss the differences between English subordinate clauses and their Korean translations. This study focuses on the adverb clauses, especially 'when'. According to the stream of information, an adverb clause can be placed flexibly in English, while the main clause must be preceded before the adverb clause in Korean.

The subordinator 'when' is translated into five patterns: i) verbal suffixes; ii) nouns; iii) relativizer; iv) adverbs; v) deletion

There are also three kinds of ways of translating English main-subordinate clauses into Korean: i) following the order of the English sentence (i.e. subordinate-main clause); ii) reversing the order of the English sentence (i.e. main-subordinate clause); iii) forming of the inserted sentence (i.e. put the subordinate clause into the main clause).



I. 서 론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 영어의 시간 종속접속사 when절이 한국어로 번역될 때 과연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할) 때’의 의미(cf. Longman English-English-Korean Dictionary 1996)만으로 전체 문맥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전달 할 수 있을까? 다음 문장들을 보자.

- (1) a. The little girls caught Christina Noble's eye when she arrived in Ho Chi Minh City.
b. 호치민시에 도착했을 때, 어린 여자아이들이 크리스티나 노블의 시선을 끌었다. (Reader's Digest 100: 37)

예문(1)은 ‘-(할) 때’를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번역된 경우이다.

다음 예문들은 ‘-(할) 때’이외의 다른 문법 장치들을 이용하여 when절을 번역을 한 경우이다.

- (2) a. When the water subsided, he put his hands under his armpits to conserve heat.
b. 물이 빠지자 그는 열을 보존 하려고 두 손을 겨드랑이 밑에 넣었다. (Reader's Digest 100: 14)

(3) a. My father was working part time as a limousine driver when he had to transport a well-known soap-opera star to "The Today Show."

b. 하루는 아버지가 유명한 여배우를 녹화장까지 태워다주는 리무진 기사 노릇을 하게 되었다. (Reader's Digest 101: 101)

(4) a. "We were talking about coral reproduction when someone observed that it seemed to happen all at once," Heyward says.

b. "우리는 산호의 번식에 관해서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산호는 그 과정이 동시에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헤이워드 설명한다. (Reader's Digest 100: 84)

위의 예문(2), (3), (4)에서 보듯이 전혀 ‘-(할) 때’의 의미가 없다. 예문(2)은 어미를 이용한 번역이고, 예문(3)은 관형절을 이용한 번역이다. 그리고 마지막 예문(4)는 부사를 이용하여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누어 번역한 형태이다.

영어는 주절과 종속절의 어순이 유동적인 반면 한국어는 반드시 종속절이 주절보다 선행하게 된다. 주절과 종속절의 어순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 a. The little girls caught Christina Noble's eye when she arrived in Ho Chi Minh City.

b. 호치민시에 도착했을 때, 어린 여자아이들이 크리스티나 노블의 시선을 끌었다. (Reader's Digest 100: 37)

(6) a. When the water subsided, he put his hands under his armpits to conserve heat.

b. 물이 빠지자 그는 열을 보존 하려고 두 손을 겨드랑이 밑에 넣었다. (Reader's Digest 100: 14)

예문(5)는 종속절인 부사절이 주절보다 후행하였고, 예문(6)은 종속절인 부사절이 주절보다 선행하였다. 그러나 한국어 번역에 있어서는 예문(5),(6) 모두 종속절인 부사절이 선행되어 번역되었다.

영어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려면, 앞 문장에서 언급된 내용이 뒤이어나오는 문장의 첫머리로 이어져야 한다(Bardovi-Harling 1990: 51). 그래서 주절과 종속절의 어순이 유동적이지만, 한국어에서는 종속절이 주절보다 후행한 경우에는 담화적인 의미전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한국어는 종속절이 주절보다 선행하여야한다(임홍빈외 1999: 58).

본 연구에서는 시간접속사 when이 들어 있는 부사절 형태의 종속절이 영한 번역시 어떤 식의 우리말 영역이 좀 더 자연스러운 의미가 되는지를 먼저 알아보하고자한다. 그리고 영어 문장의 정보성에 따라 한국어로 번역시 어떤 어순으로 나타나는지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두 언어의 번역 상당 어구와 어순에 따라 어떤 식으로 번역되었는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Reader's Digest 영한 대역 본 100집(2009년 9월-10월), 101집(2009년 11월-12월), 102집(2010년 1월-2월) 총 3권을 언어 자료로 삼아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 3장에서는 본 논문의 핵심인 when의 번역 상당 어구에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 주절과 종속절의 어순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앞의 장들에서 논의된 내용을 요약·정리한다.



II. 이론적 배경

2.1 정보성

문장은 담화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기본단위이다. 그러나 담화에서 별개로 독립된 하나의 문장은 메시지 전달에 큰 기여를 못하고 각각의 관련된 문장들이 의미 있는 단락이나 한 이야기 또는 하나의 장(chapter)같은 보다 큰 일관된 단위로 결합될 때에야 하나의 메시지 전달을 원활히 이룰 수 있다. 이와 같이 하나의 이야기나 대화처럼 한 개 이상의 문장으로 구성된 문장의 연속체가 독립된 하나의 화행으로 인지될 수 있을 때 이를 담화라고 한다. 정희자(1999)에 따르면 담화의 주요한 목적은 효과적인 의사소통 즉, 정보 전달에 있다. 정보전달은 담화 상황에서 문장을 연결하는 형식으로 이루어 지는데, 이때 화자는 정보가 효율적으로 상대방에 전달되도록 문장을 엮고 그 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전달하는 정보에는 중요한 것과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다. 전달하는 정보가 모두 똑같은 정도로 중요하면 청자에게 부담스럽다. 화자는 중요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적절히 배열하여 중요한 정보에 청자의 주의를 기울여지도록 배치하는 것이 전달내용이 산만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러한 화제는 화자가 선정하지만, 청자는 그것에 의해 주목의 방향이 한정되어 전달내용의 이해가 쉬워지는 효과를 가진다.

2.2 정보성과 어순

영어에서는 부사절이 주절의 앞이나 뒤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쓰인다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다음 예문들을 잘 살펴보면 비록 영어문장에서는 종속절인 부사절이 주절보다 선행하는 경우도 후행하는 경우도 다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미적 전달에 있어서 부사절이 어떤 쪽에 있을 때 더 자연스러운 그리고 더 정확한 번역이 되는지를 다음 조인정(2005)의 예를 들어 알아보겠다.

먼저 종속절이 주절 보다 앞선 것이 더 자연스런 어순이 되는 경우를 알아보자.

(7) Everything went wrong for Jack this morning. His alarm clock didn't ring, he burned his breakfast, his car wouldn't start, and he missed the bus.

a. Because of his misadventures, he was late to work.

b. He was late to work because of his misadventures.

(Bardovi-Harling 1990: 51)

영어 부사절의 문장 내에서의 위치는 단순히 문체상의 이유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글의 정보 흐름에 따라 정해진다(Chafe 1984; Ford 1993; Givón 1984; Ramsay 1987; Thompson 1987; Thompson & Longacre 1985). 예를 들면, (7)의 토막글 다음에 문두 부사구가 사용된 (7a)나 문

미 부사구가 사용된 (7b)가 올 경우 (7)과 (7a)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나, (7)과 (7b)는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읽히지 않는다(Bardovi-Harling 1990: 51). 그 이유는 문장과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려면, 앞 문장에서 언급된 내용인 구정보가 뒤이어 나오는 문장의 첫머리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맥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종속절에 구정보가 들어있는 (7a)와 예문(7)이 연결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다음은 주절이 종속절 보다 앞선 것이 더 자연스런 어순이 되는 경우를 알아보자.

- (8) Josephson's experiment suggests that youngsters who do not have aggressive tendencies to begin with do not necessarily act aggressively— at least, not on the basis of seeing only one violent film.
- a. That last phrase is an important one because it may be that even youngsters who are not prone toward aggression will become more aggressive if exposed to a steady diet of violent films over a long period.
- b. Because it may be that even youngsters who are not prone toward aggression will become more aggressive if exposed to a steady diet of violent films over a long period, that last phrase is an important one. (조인정 2005: 357-358)

위의 토막글에는 부사절이 주절 뒤에 사용된 (8a)가 (8b)보다 더 잘 어울린다. 그 이유는 (8a)의 주절에 나타난 내용이 앞선 문장인 (8)의 마지막 부분을 그야말로 직접적으로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본 문두 부사절뿐만 아니라 문미 부사절도 정보 흐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Biber, Johansson, Leech, Conrad & Finegan 1999: 835-836). 이처럼 영어 부사절은 글의 정보 흐름 즉, 정보성이 높은 것과의 관계에 따라 그 위치가 유연하게 정해질 수 있다.

반면, 한국어에서는 종속절인 부사절이 주절보다 선행하는 문장은 있을 수 없는데 한국어는 정보성의 반영이 영어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어와 한국어 부사절의 어순 차이가 영한 번역 시 문제가 된다. 영어 부사절이 문두에 있을 경우에는 한국어에서도 문두 부사절로 번역될 수 있지만, 영어 부사절이 문미에 있을 경우에는 한국어에서는 문미 부사절이 아닌 문두 부사절로 번역이 되어야 하므로 글의 정보 흐름이 흐트러지게 된다. 영어의 정보성을 유지하면서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번역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다음 3장에서 알아보려고 한다.

Ⅲ. 시간접속사 when의 영한 번역

이 장에서는 영한 번역 자료인 Reader's Digest 영한 대역 본 100집, 101집, 102집 3권에서 when이 사용된 총 130개의 문장들 중에서 관계부사, 의문사, 그리고 의역되어 의미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¹⁾를 제외한 시간 종속 접속사로 사용된 108개의 문장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3.1에서는 when의 번역 상당 어구에 따른 유형을 살펴보고, 3.2에서는 주절과 종속절의 어순에 따른 유형을 살펴본다.

1) 130개 문장들 중에서 관계부사 형태 12개, 의문사 형태 5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역된 경우가 5개로 나타났다.

i) 관계부사

In the 1960 and 1970s, **when** Korea was still a male-chauvinist society, quite a few Korean women suffered from domestic violence. (Readers's Digest 102: 58)

위 예문(i)에서는 when이 선행사(In the 1960 and 1970s)를 가진 관계부사로 번역된 경우이다.

ii) 의문사

When is the paper due? (Readers's Digest 102: 22)

위 예문(ii)는 의문사(언제)를 이용한 번역이다.

iii) 의역

When anorexics look in the mirror, no matter how thin they may have become, they see only fat.

신경성 식욕부진 환자는 거울에 비친 자기 몸이 아무리 야위어도 뚱뚱하다고 생각한다.

(Readers's Digest 101: 8)

위 예문(iii)은 when의 의미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의역되어 번역되었다.

3.1 when의 번역 상당 어구

시간 접속사 when의 번역 상당 어구의 유형에 따라 분류하면 아래의 예문들에서 나타나듯이 크게 5가지-어미, 명사, 관형절, 부사, 생략-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예문(9)은 어미를 이용한 번역 형태이다.

(9) a. They had just started moving when the dispatcher ordered them to stop.

b. 열차를 막 출발시키는데 배차원으로부터 정지명령이 떨어졌다.

(Reader's Digest 101: 42)

다음 예문(10)은 명사를 이용한 번역 형태이고, 예문(11)은 관형절을 이용한 번역 형태이다.

(10) a. There is always an especially weighty reason when he puts on a tie or swears.

b. 그분이 넥타이를 매거나 훈시를 할 때는 항상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Reader's Digest 102: 78)

(11) a. The water had just started lapping his lips when suddenly it drained away.

b. 그의 입술까지 차올랐던 물이 갑자기 빠져나갔다. (Reader's Digest 100: 12)

다음은 부사를 이용한 번역 형태이다.

(12) a. "We were talking about coral reproduction when someone observed that it seemed to happen all at once," Heyward says.

b. "우리는 산호의 번식에 관해서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산호는 그 과정이 동시에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지요." 헤이워드가 설명한다. (Reader's Digest 100: 84)

마지막으로 생략의 번역 형태이다.

(13) a. I was working the graveyard shift as a rookie police officer one night when my partner and I made a routine check at a high school that had suffered a recent rash of vandalism.

b. 풋내기 경찰관인 나는 어느 날 밤 철야순찰 근무를 하고 있었다. 나는 동료 경찰관과 함께 최근 파괴 행위로 골치를 앓고 있는 고등학교를 둘러보았다. (Reader's Digest 101: 62)

위 5가지 예문들을 분류한 유형 및 빈도수를 정리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1> when의 번역 상당 어구 유형 및 빈도

어미	명사	관형절	부사	생략
48개 (44.5%)	48개 (44.5%)	9개 (8.3%)	2개 (1.8%)	1개 (0.9%)

시간 접속사 when의 번역 상당 어구의 유형에 따라 분류한 것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예문(9)처럼 어미²⁾를 이용한 번역이 108개중에서 48개(44.5%)로 나타났고, 예문(10)의 명사로 번역된 경우도 48개(44.5%)로 발견되었다. 그리고 예문(11) 형태인 관형절을 이용한 번역이 9개(8.3%), 예문(12)의 부사로 번역된 경우가 2개(1.8%)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예문(13)에서와 같이 when이 들어있는 부사절을 따로 떼어서 2개의 문장으로 번역한 것으로 when의 의미가 나타나지 않는 생략이 1개(0.9%)로 나타났다.

3.1.1 어미

여기서는 어미를 이용하여 번역된 경우로 총 108개중 48개(44.5%)가 발견되었고, 번역 상당 어구는 10가지가 발견되었으며 아래 표와 같다.

2) 국어대사전(1991; 민중서관)에 따르면 한국어에서 어미는 동사나 형용사형태 뒤에 붙어서 여러 가지로 활용 되는 부분이다. ‘먹고’ ‘먹다’ ‘먹으면’ ‘먹어서’에서 ‘-고’ ‘-다’ ‘-으면’ ‘-어서’ 같은 것이다. 이후에 설명된 어미의 뜻은 동아새국어사전(2000: 두산동아)에 따른다.

<표 2> 어미의 번역 상당 어구 및 빈도

-자	-면	-며 (면서)	-는데	-고	-니	-다가	-아서	-어서	-여야
18개 (37.5%)	14개 (29.2%)	4개 (8.3%)	3개 (6.2%)	3개 (6.2%)	2개 (4.2%)	1개 (2.1%)	1개 (2.1%)	1개 (2.1%)	1개 (2.1%)

‘-자(18개), -면(14개)’이 총 48개중 32개(66.7%)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며(면서)(4개), -는데(3개), -고(3개), -니(2개), -다가(1개), -아서(1개), -어서(1개), -여야(1개)’ 등은 그 사용 빈도수가 낮게 발견되었다.

① ‘-자’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막 끝나고 다른 동작이나 상태가 바로 이어짐을 나타내는 어미로 48개중에서 18개(37.5%)가 나타났다.

(14) a. When they were done, Noble stunned them.

b. 학생들이 이야기를 마치자 노블은 놀라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Reader's Digest 100: 46)

예문(14)에서 보듯이 학생들이 이야기를 마치는 동작이 끝나자마자 노블이 이야기를 바로 이어간다는 느낌이 있다. 그래서 어미 ‘-자’를 이용하여 번역하면 자연스러운 연결이 이루어진다.

② ‘-면’³⁾

실현이 확실한 가정적 조건을 나타낼 때 쓰는 어미로 48개중에서 14개 (29.2%)가 나타났다.

(15) a. When someone is exposed to extended subzero conditions,
body temperature drips,...

b. 사람이 영하의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체온이 떨어지고 중요한
기관으로 가는 피의 흐름이 더더진다... (Reader's Digest 100:
18)

위의 예문(15)에서 보듯이 어떤 조건을 사실에 근거를 두고 말할 때 ‘-면’
이라는 것으로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③ ‘-며(면서)’

둘 이상의 동작이나 상태를 아울러 나타내는 어미로 48개중에서 4개
(8.3%)가 나타났다.

3) Givón의 기능영문법II(2002: 425)에 따르면 ‘-면’의 의미를 표현할 때 ‘when’은 어떤 일이 확실히
일어난다고 생각될 때에 쓰이거나 시간적일 때 쓰인다. 반면 ‘if’는 어떤 상태가 일어나는 것이 불
확실할 때에 쓰이거나 조건적일 때 쓰인다.

i) When you bring it, I'll pay you. (>but until you bring it, I won't)

ii) If you bring it, I'll pay you. (>but if you don't bring it, I won't)

- (16) a. When I ordered him to turn over his keys, I thought I had found the perfect solution to the problem...
- b. 차 열쇠를 넘겨 달라고 하면서 나는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줄 알았는데 사실은... (Reader's Digest 100: 74)

예문(16)에서 보듯이 열쇠를 달라고 하는 동작 하나와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동작이 동시에 나타난 경우이다.

④ ‘-는데’

뒷말을 끌어내기 위하여 이와 대립되는 어떤 전제를 베풀어 말하는 뜻을 나타내는 어미로 48개중에서 3개(6.2%)가 나타났다.

- (17) a. It's amazing how much you can hear when no one is saying nothing.
- b. 누구도 아무 말 하지 않는데 들리는 것이 그다지도 많다니 놀라운 일이다. (Reader's Digest 102: 70)

예문(17)에서처럼 어떤 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과는 대립되는 형태이다. 이처럼 서로 대립되는 것의 하나를 먼저 전제로 말하고 이에 대해 다른 하나를 나열할 경우 ‘-는데’의 표현을 이용한다.

⑤ ‘-고’

앞의 사실이 뒤의 사실에 대하여 시간적으로 선행하는 조건이 됨을 나타내는 어미로 총 48개중에서 3개(4.2%)가 나왔다.

(18) a. ...cutting privileges when he didn't gain weight was "counterproductive" and "demoralizing".

b. ...체중이 불지 않는다고 여러 가지 벌칙을 가한 것 역시 “역효과”를 불러 환자의 “사기 저하”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Reader's Digest 101: 20)

예문(18)에서처럼 체중이 불지 않은 것이 시간적으로 먼저 일어난 사실로 선행한 조건이고 벌칙을 가한 것은 그 후에 발생한 일이므로 ‘-고’를 이용한 번역이 이용된다.

⑥ ‘-니’

어떤 사실을 들어 보인 다음 그와 관련된 다음 말을 끌어내는 뜻을 가진 어미로 48개중 2개(4.2%)가 나타났다.

(19) a. When she got back two minutes later, the boys ran sobbing towards her.

b. 2분 후 샌드라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니 큰 아이들이 울면서 달려왔다. (Reader's Digest 101: 40)

예문(19)에서는 먼저 한 가지 사실(샌드라가 집에 돌아온 것)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그 사실과 관련된 어떤 일이 발생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니’란 어미를 이용한다.

⑦ ‘-다가’

그 동작이 어떤 일의 이유나 전제가 됨을 나타내는 어미로 1개(2.1%)가 나타났다.

- (20) a. ...,his idea of bringing an Elvis museum to the store a few years ago went badly wrong when he ignored my advice and trusted the wrong person.
- b. ...,몇 년 전 엘비스 프레슬리 박물관을 상점과 연계하려 했던 그의 아이디어는 제 의견을 무시하고 부적절한 사람을 믿다가 큰 낭패를 보았죠. (Reader's Digest 102: 90)

예문(20)에서는 어떤 사람을 믿었던 것이 전제 혹은 이유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낭패를 본 것을 나타내는 표현방식이다.

⑧ ‘-아서’

까닭이나 시간의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어미로 1개(2.1%)가 발견되었다.

- (21) a. When she got home, it was all she could talk about.

- b. 집에 돌아와서도 도로시의 화제는 온통 스케이트에 관한 얘기뿐이었다. (Reader's Digest 102: 106)

예문(21)에서처럼 시간적으로 선행인 집에 돌아온 것 다음에도 후행 사건인 스케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다.

⑨ '-어서'

어떤 말이 다음 말의 조건·수단·이유 등이 됨을 뜻하는 어미로 1개(2.1%)가 발견되었다.

(22) a. Vesa started working in the store when he was only a boy.

b. 베사는 어려서부터 상점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Reader's Digest 102: 86)

예문(22)에서 베사가 일을 시작했는데 조건이 어려서 시작된 것을 나타내기 위해 '-어서'라는 표현을 이용하였다.

⑩ '-여야'

뒷말에 대한 필수 조건임을 나타내는 어미로 1개(2.1%)가 발견되었다.

(23) a. When the machine beeped an alarm to alert his nurse that the drip had malfunctioned, he let go.

b. 기계의 작동 이상을 간호사에게 알리는 경고음이 울려야만 브랜
든은 잡아당기던 튜브를 놓았다. (Reader's Digest 101: 26)

예문(23)에서 어떤 동작이 일어나야만(경고음이 울린다) 다음 동작(튜브를
놓음)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어미를 이용한 when절의 번역형태는 연구 대상인
108개의 문장에서 48개(44.5%)로 나타났으며 번역 상당 어구는 총10가지
'-자(18개), -면(14개), -며(면서)(4개), -는데(3개), -고(3개), -니
(2개), -다가(1개), -아서(1개), -어서(1개), -여야(1개)'가 발견되었다.

3.1.2 명사

when을 명사를 이용하여 번역한 경우로 총 108개중에서 48개(44.5%)가
나타났다. 명사 상당 어구 중에서 43개(89.5%)가 시간의 의미를 나타내는
'-(할) 때'로 제일 빈도가 높게 나타났고, 나머지 5개(10.5%)는 변이형인
'순간, 경우, 무렵, 그날, 그때' 라는 명사 상당 어구를 이용하여 각각 1개씩
번역되었다.

명사를 이용한 경우 크게 2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번역을 하였다. 첫 번째
는 하나의 문장으로 번역-'-(할) 때, 순간, 경우, 무렵'-한 경우이고, 두
번째는 두 개의 문장으로 번역-'그날', '그때'-한 경우이다.

① 한 개의 문장으로 번역

먼저 명사를 이용하여 한 개의 문장으로 번역한 경우로 대다수의 문장들이 여기에 속한다. 먼저 ‘-(할) 때’로 번역된 경우이다.

(24) a. The little girls caught Christina Noble's eye when she arrived in Ho Chi Minh City.

b. 호치민시에 도착했을 때 어린 여자아이들이 크리스티나 노블의 시선을 끌었다. (Reader's Digest 100: 37)

예문(24)에서처럼 48개의 문장 중에서 대부분인 43개(89.5%)가 ‘-(할) 때’로 번역되었다. 다음은 변이형인 ‘순간’, ‘경우’ 혹은 ‘무렵’으로 각각 1개(2.1%)씩 발견되었다.

(25) a. Not easily discouraged, I hiked up my skirt, and was about to dive into the back when the third member of our party intervened.

b. 쉽게 단념하지 않는 내가 치마를 걷어 올리고 뒷 자석으로 몸을 던지려는 순간 세 번째 사람이 끼어들었다. (Reader's Digest 100: 125)

예문(25)의 경우에는 ‘순간’ 명사를 이용하여 영어의 정보성을 유지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의미전달을 시도하였다.

- (26) a. “When two women want to talk about something intimate, they're likely to sit down, face each other and ask ‘How do you feel?’”
- b. “뭔가 은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을 경우 여자들은 마주 앉아서 얼굴을 맞대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로 말문을 열 것입니다.”
(Reader’s Digest 102: 16)

예문(26)에서는 ‘경우’라는 ‘놓이게 되는 조건이나 때’의 의미로 번역하였다. 위에서 보듯이 여자들이 뭔가 은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조건(즉, 상황)이 생겼을 때 이러한 번역 표현을 사용한다.

- (27) a. When Brandon left Huntercombe, he weighed almost 114 pounds—103.3 percent of his healthy weight range.
- b. 브랜든이 병원을 떠날 무렵에는 몸무게가 114파운드(51kg)로 표준체중의 103.3%나 되었다. (Reader’s Digest 101: 32)

예문(27)에서는 ‘무렵’이라는 ‘일이 벌어지거나 이루어지는 시간을 중심으로 그 즈음’의 의미로 번역하였다. 예문(27)에서 보듯이 브랜든이 병원을 떠날 쯤에 표준 몸무게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② 두 개의 문장으로 번역

여기에서는 명사 ‘그날’ ‘그때’를 이용하여 번역하였고 명사 상당 어구 번

역 48개 중에서 각각 1개(2.1%)씩 2개가 발견되었다.

(28) a. Anna says that she chalked up her first, official arrest when she spotted a hunter firing from the brush and phoned the Carabinieri.

b. 안나는 자신의 신고로 밀렵꾼이 처음 체포되던 날을 기억하고 있다. 그날 안나는 덤불에서 총질을 하던 사냥꾼을 발견하고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Reader's Digest 100: 110)

(29) a. ...Marie Werry was hanging laundry in her yard ...when she spotted her 11-year-old son, Brandon, bent over...

b. ...마리 웨리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다. 그때 ...11살 난 아들 브랜든이 허리를 구부린 채... (Reader's Digest 101: 6)

예문(28)과 예문(29)에서는 두 개의 문장으로 번역된 경우이다. 한국어는 주절이 종속절보다 선행해서 번역을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두 개의 문장으로 번역을 시도하였다. 그래서 영어의 정보성을 유지하면서도 한국어 번역시 자연스러운 의미전달을 시도하였다.

명사를 이용하여 when을 번역한 경우는 총 108개중에서 48개(44.5%)가 발견되었다. 번역 상당 어구는 ‘-(할) 때’가 대다수인 43개가 발견되었고, 나머지 5개는 그 변이형으로 각각 1개씩 ‘순간, 경우, 무렵, 그날, 그때’로 나타났다.

3.1.3 관형절

여기서는 명사를 꾸미는 관형어 구실을 하는 관형절로 번역된 경우로 총 108개 중에서 9개(8.3%)가 발견되었다. 그 중 종속절을 먼저 번역해서 주절의 명사를 수식한 형태가 6개(66.7%)가 발견되었고, 주절을 먼저 번역해서 종속절의 명사를 수식한 형태가 2개(22.2%) 발견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1개(11.1%)는 주절에 종속절을 내포하여 번역한 경우였다. 먼저 종속절이 관형절로 쓰인 경우이다.

- (30) a. When he reached the child, he grasped her in his arms and turned away from the screeching train.
- b. 아이에게 다가간 그는 아이를 얼싸안고 마찰음을 내고 있는 열차에서 눈을 돌렸다. (Reader's Digest 101: 54)

예문(30)에서처럼 종속절이 주절의 명사(he)를 수식하여 번역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주절이 문장 전체의 흐름을 주도 하고 종속절인 부사절은 원래 수식의 의미로 쓰이는 것이라 자연스러운 번역이 된다. 다음은 주절이 관형절로 쓰인 경우이다.

- (31) a. As water poured over her face... He placed his hand on Sally's mouth, trying to keep her from drowning.... The water

had just started lapping his lips when suddenly it drained away.

- b. 물이 얼굴위로 쏟아지자... 그는 한 손을 샬리의 입 위에 올려놓고 익사하려는 것을 막아보려고 했다.... 그의 입술까지 차올랐던 물이 갑자기 빠져나갔다. (Reader's Digest 100: 12)

예문(31)에서는 종속절의 주어로 쓰인 '물(it)'이 빠져나간 것이 사건의 전후 사정상 중요하므로 주절을 마치 관형절인 형태로 만들어 종속절의 주어를 수식하는 형태로 번역하였다. 마지막으로 종속절이 주절에 내포되어 번역되는 경우이다.

(32) a. My father was working part time as a limousine driver when he had to transport a well-known soap-opera star to "The Today Show.

- b. 하루는 아버지가 유명한 여배우를 녹화장까지 태워다주는 리무진 기사 노릇을 하게 되었다. (Reader's Digest 101: 101)

예문(32)은 종속절을 주절에 내포하여 관형절 형태로 번역한 경우이다. 종속절을 주절의 명사 '리무진 기사(a limousine driver)'를 수식하는 관형절 형태로 만들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관형절로 번역된 경우가 총 108개 중에서 9개 (8.3%)가 발견되었다. 종속절이 관형절 형태로 쓰인 경우가 6개였고, 주절

이 관형절 형태로 쓰인 경우가 2개, 그리고 종속절이 주절에 내포된 경우는 1개로 나타났다.

3.1.4 부사

여기서는 when이 ‘그런데’ 또는 ‘사실’이라는 부사로 번역되는 것으로 2개(1.8%)가 발견되었다. 먼저 ‘그런데’의 예문을 살펴보자.

- (33) a. "We were talking about coral reproduction when someone observed that it seemed to happen all at once," Heyward says.
- b. "우리는 산호의 번식에 관해서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산호는 그 과정이 동시에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지요." 헤이워드가 설명한다. (Reader's Digest 100: 84)

‘그런데’는 앞의 말을 관련시키면서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거나 상반된 내용으로 이끌 때 쓰이는 접속부사이다. 다음은 ‘사실’의 예문을 보자.

- (34) a. Thinking is what a great many people think they are doing when they are merely rearranging their prejudices.
- b.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사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들은 자신의 편견을 재정리하고 있을 뿐이다. (Reader's Digest
102: 105)

예문(33)는 두 개의 문장으로 번역을 하였고 예문(34)는 한 개의 문장으로 번역을 하였다. 그러나 두 문장 모두 한국어 번역시 주절을 먼저 번역하고 종속절을 나중에 번역한 경우이다. 한국어는 주절이 종속절보다 선행해서 번역을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두 개의 문장으로 번역을 하였는데 이는 영어의 정보성을 유지하면서도 자연스러운 한국어 번역을 위한 것이다.

3.1.5 생략

이번에는 다른 품사를 전혀 쓰지 않고 완전한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누어⁴⁾ 번역된 경우이다. 총 108개의 문장 중에서 1개(0.9%)로 아주 낮은 비율로 발견되었다.

(35) a. I was working the graveyard shift as a rookie police officer
one night when my partner and I made a routine check at a
high school that had suffered a recent rash of vandalism.

4) 박갑수(1998), 장경희(1999)에 따르면 주어와 서술어가 가까워야 이해가 쉽다는 것을 고려할 경우 두 개의 문장으로의 번역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번역이다. 그리고 Newmark(1988)에 따르면 문장이 너무 길지 않는 한 쪼개서 번역하지 말아야한다.

- b. 꽃내기 경찰관인 나는 어느 날 밤 철야순찰 근무를 하고 있었다.
나는 동료 경찰관과 함께 최근 파괴 행위로 골치를 앓고 있는
고등학교를 둘러보았다. (Reader's Digest 101: 62)

예문(35)에서는 두 개의 문장으로 따로 번역하여 영어의 정보성을 유지하면서 한국어 번역시 어색함을 피하였다. 이는 한국어는 주절이 선행해서 번역을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누어 번역을 하면서 의미전달을 시도하였다.

when을 번역 상당 어구의 유형에 따라 분류한 것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분석 문장 108개 중에서 어미를 이용한 번역이 48개(44.5%), 명사를 이용한 번역이 48개(44.5%), 관형절을 이용한 번역이 9개(8.3%), 부사를 이용한 번역이 2개(1.8%),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략 형태로 when의 의미를 따로 번역하지 않고 따로 떼어서 2개의 문장으로 번역한 것이 1개(0.9%)로 나타났다. 그리고 when의 가장 기본 의미라고 생각했던 ‘-(할) 때’의 의미는 전체 분석 자료 108개 중에서 43개(39.8%)로 그 비중이 매우 높지는 않았다.

3.2 주절과 종속절 어순

정보성에 따라 주절과 종속절의 위치가 결정되는 영어와는 달리 한국어는 주절이 종속절을 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종속절이 반드시 주절

앞에 위치해야만 자연스러운 번역이 되며 의미 전달이 가능하다. 영어 문장에서 when절인 종속절이 주절보다 앞선 경우는 한국어로의 번역이 그다지 번거롭지 않을 것이나 종속절이 주절보다 후행한 경우에 그 어순이 번역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조사하였다. 분석 자료로 사용한 총 108개 문장을 주절과 종속절의 어순에 따라 어떤 어순이 많이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여보니 종속절-주절, 주절-종속절, 종속절이 주절에 내포된 3가지 형태가 발견되었다.

(36) When you don't know what you want, you often end up where you don't want to be. (Reader's Digest 100: 36)

(37) ...Geoffrey would slap him on the nose when he got too aggressive and reprimand him. (Reader's Digest 102: 38)

(38) ...Field explains when we surface, it contains fewer nutrients for the coral. (Reader's Digest 100: 82)

영어 문장에서 주절과 종속절의 어순에 따라 문장들을 분석한 결과와 유형의 빈도수는 아래 표와 같다.

<표 3> 영어 주절과 종속절의 어순 유형 및 빈도

종속절-주절	주절-종속절	종속절이 주절에 내포
66개(61.1%)	39개(36.1%)	3개(2.8%)

분석한 108개 문장들 중에서 예문(36)에서처럼 종속절-주절 어순이 가장 많은 66개(61.1%)가 발견되었고, 그 다음이 예문(37)의 주절-종속절 어순이 39개(36.1%)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예문(38)의 종속절이 주절에 내포된 형태는 3개(2.8%)가 발견되었다.

3.2.1 종속절-주절 어순

먼저 종속절-주절 어순의 번역 방식에 있어서 2가지 형태가 있었다. 이 문장들을 분석한 결과와 유형의 빈도수는 아래 표와 같다.

<표 4> 종속절-주절의 한국어 번역 유형 및 빈도

종속절-주절	주절-종속절	종속절이 주절에 내포
65개(98.5%)	0개(0%)	1개(1.5%)

종속절이 주절보다 선행한 경우 66개의 문장 중에서 65개(98.5%)가 영어의 어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국어로 번역되었고, 나머지 1개(1.5%)는 종속절이 주절에 내포한 형태로 나타났다. 그리고 영어의 어순을 바꾼 주절

-종속절 형태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다.

A. 종속절-주절 어순 번역

먼저 종속절이 번역되고 주절이 뒤에 번역되는 문장 순서 그대로 번역되는 경우가 절대적이었고, 아래와 같이 어미이용, 명사이용, 관형절이용 등 3가지로 나타났다.

- (39) a. When the drilling stopped, he reassured Stuart.
b. 작업이 중지되자 그가 스튜어트를 안심시켰다. (Reader's Digest 100: 26)
- (40) a. When you don't know what you want, you often end up where you don't want to be.
b.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 흔히 자기가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가게 된다. (Reader's Digest 100: 36)
- (41) a. When he reached the child, he grasped her in his arms and turned away from the screeching train.
b. 아이에게 다가간 그는 아이를 얼싸안고 마찰음을 내고 있는 열차에서 눈을 돌렸다. (Reader's Digest 101: 54)

한국어로 번역시 65개중에서 예문(39)처럼 어미를 이용한 경우는 35개 (53.8%)이고, 예문(40)처럼 명사를 이용하여 번역이 되는 경우가 25개 (38.5%)로 나타났으며, 그리고 나머지 5개(7.7%)는 예문(41)에서처럼 종속절이 주절의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절 형태로 번역되었다.

B. 종속절이 주절에 내포되어 번역

두 번째는 종속절이 주절 내에 위치한 형태로 번역되는 경우로 66개중 1개(1.5%)가 나타났다.

- (42) a. ...when asked, George said only that his son had died at the hands of the Germans.
- b. ...조지 드미트릭은 사람들이 물으면 자기 아들은 독일군과 싸우다 전사했다고만 간단히 대답했다. (Reader's Digest 101: 120)

이처럼 종속절이 주절 보다 앞선 형태를 문맥의 자연스러움을 위해 종속절을 주절 내에 위치한 형태로 번역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러한 번역 형태는 그 빈도수에 있어서 많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영어 문장의 종속절-주절어순에서 그 번역의 형태는 크게 2가지로 나타났다. 첫 번째는 어순을 그대로 유지한 종속절-주절어순 번역으로 66개중에서 대부분인 65개(98.5%)로 나타났다. 두 번째는 종속절을 주절 내에서 번역한 형태로 1개(1.5%)가 나타났다. 종속절-주절어순 번역에서의 번역 상당 어구는 어미이용, 명사이용, 관형절 이용을 이

용하였고, 그리고 종속절이 주절에 내포되어 번역한 것도 발견되었다.

3.2.2 주절-종속절 어순

이번에는 주절-종속절 어순으로 108개 중 39개(36.1%)가 나타났으며 번역 방식은 다음 3가지로 나타났다. 이 문장들을 분석한 결과와 유형의 빈도수는 아래 표와 같다.

< 표 5 > 주절-종속절의 한국어 번역 유형 및 빈도

종속절-주절	주절-종속절	종속절이 주절에 내포
24개(61.5%)	11개(28.2%)	4개(10.3%)

주절이 종속절보다 선행한 경우 어순을 바꾸어 종속절-주절 어순으로 번역한 경우가 24개(61.5%)가 발견되었고, 그 다음이 원래 영어의 어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번역한 경우가 11개(28.2%)로 나타났다. 그리고 종속절이 주절에 내포되어 번역되는 경우도 4개(10.3%)나 되었다.

A. 종속절-주절 어순 번역

먼저 영어의 어순은 주절-종속절이지만 한국어 번역이 그 반대인 종속절이 해석되고 난 다음에 주절이 해석되는 경우로서 39개중에서 24개(61.5%)가 나타났고 번역 형태는 아래와 같이 2가지-어미이용, 명사이용-

가 발견되었다.

(43) a. ...,Geoffrey would slap him on the nose when he got too aggressive and reprimand him.

b. ... 높이 너무 공격적이면 코를 찰싹 때려주고 꾸짖었다.
(Reader's Digest 102: 38)

(44) a. The little girls caught Christina Noble's eye when she arrived in Ho Chi Minh City.

b. 호치민시에 도착했을 때 어린 여자아이들이 크리스티나 노블의 시선을 끌었다. (Reader's Digest 100: 37)

이때는 한국어로 해석 할 때 24개 중에서 7개(29.2%)가 예문(43)에서와 같이 어미를 활용하여 의미전달을 시도하였고, 대다수인 17개(70.8%)가 예문(44)에서처럼 명사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이 경우 17개 모두 ‘-(할) 때’로 번역되었다.

B. 주절-종속절 어순 번역

이번에는 영어의 어순이 주절-종속절인데 한국어 번역도 주절이 먼저 번역되고 종속절이 뒤에 번역되는 경우로 39개 중에서 총 11개(28.2%)였다. 이때 한국어로 번역시 다음과 같이 5가지-어미이용, 명사이용, 관형절 이용, 부사이용, 생략-로 나타났다. 먼저 어미를 이용한 번역형태이다.

(45) a. They had just started moving when the dispatcher ordered them to stop.

b. 열차를 막 출발시키는데 배차원으로부터 정지명령이 떨어졌다.

(Reader's Digest 101: 42)

예문(45)에서 보듯이 어미를 이용한 번역이 11개 중에서 3개(27.3%)가 발견되었다. 다음은 명사를 이용한 번역형태이다.

(46) a. ...she chalked up her first, official arrest when she spotted a hunter firing from the brush and phoned the Carabinieri.

b. 안나는 자신의 신고로 밀렵꾼이 처음 체포되던 날을 기억하고 있다. 그날 안나는 덩불에서 총질을 하던 사냥꾼을 발견하고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Reader's Digest 100: 110)

예문(46)에서처럼 명사를 이용한 번역형태는 3개(27.3%)가 발견되었는데 시간적 의미인 ‘-(할) 때’의 의미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순간, 그날, 그때’로 나타났다. 다음은 관형절로 번역된 형태이다.

(47) a. The water had just started lapping his lips when suddenly it drained away.

b. 그의 입술까지 차올랐던 물이 갑자기 빠져나갔다. (Reader's

Digest 100: 12)

예문(47)에서처럼 2개(18.2%)가 주절이 종속절의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절의 형태로 번역되었다. 다음은 부사를 이용한 번역형태와 생략된 형태이다.

(48) a. "We were talking about coral reproduction **when** someone observed that it seemed to happen all at once," Heyward says.

b. "우리는 산호의 번식에 관해서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산호는 그 과정이 동시에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지요." 헤이워드가 설명한다. (Reader's Digest 100: 84)

(49) a. I was working the graveyard shift as a rookie police officer one night **when** my partner and I made a routine check at a high school that had suffered a recent rash of vandalism.

b. 풋내기 경찰관인 나는 어느 날 밤 철야순찰 근무를 하고 있었다. 나는 동료 경찰관과 함께 최근 파괴 행위로 골치를 앓고 있는 고등학교를 둘러보았다. (Reader's Digest 101: 62)

예문(48)은 부사를 이용한 형태로 2개(18.2%)가 발견되었고, 예문(49)는 when의 의미가 따로 번역 상당 어구를 쓰지 않고 따로 떼어서 2개의 문장

으로 번역한 형태로 1개(9.0%)가 발견되었다.

영어의 종속절이 주절보다 뒤에 번역된 경우 ‘어미이용, 명사이용, 관형절 이용, 부사이용, 생략’과 같이 다양한 형태가 나타났다. 이는 영어의 주절이 선행한 문장에서 한국어 번역도 그 어순을 유지한 형태로 영어의 정보성을 유지하면서도 한국어 번역시 자연스러움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겠다.

C. 종속절이 주절에 내포되어 번역

세 번째는 종속절이 주절 내에 위치한 형태로 번역되는 경우로 39개 중에서 총 4개(10.3%)가 나타났다.

(50) a. Elizabeth's parents had divorced when she was ten.

b. 친부모는 엘리자베스가 10살 때 이혼했다. (Reader's Digest 102: 28)

(51) a. My father was working part time as a limousine driver when he had to transport a well-known soap-opera star to "The Today Show".

b. 하루는 아버지가 유명한 여배우를 녹화장까지 태워다주는 리무진 기사 노릇을 하게 되었다. (Reader's Digest 101: 101)

총 4개의 문장 중에서 3개는 명사 ‘-(할) 때’를 이용하여 주절에 종속절을

내포하여 예문(50)처럼 번역하였고 나머지 1개는 종속절을 주절 내에 넣어
서 예문(51)번처럼 수식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는 영어 문장의 특징과 한국
어 문장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이다. 주절이 종속절 보다 앞선 경우 한국어
로 번역시 영어의 주제성 문제나 또는 자연스런 의미 전달이 쉽지 않아 이
와 같은 번역 현상이 발생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영어의 주절-종속절어순에서 그 번역의 형태는 다
음과 같다. 첫 번째는 어순을 바꾸어 종속절을 먼저 번역해서 한국어의 의
미를 자연스럽게 연결한 경우가 39개중에서 24개(61.5%)가 발견되었다.
이중에서 대부분이 명사 ‘-(할) 때’로 24개중 17개(70.8%)가 나타났지만
어미를 이용한 경우도 7개(29.2%)로 다소 발견되었다. 두 번째는 주절-종
속절어순을 그대로 유지한 경우로 39개중에서 11개(28.2%)가 발견되었다.
이때는 한국어로의 번역시 어미이용, 명사이용, 관형절이용, 부사이용, 그리
고 생략으로 다양하게 발견되었다. 이 경우 영어의 정보성을 유지하면서 우
리말 번역에도 자연스런 의미 전달이 가능한 형태를 유지하려고 한 것이다.
세 번째는 종속절이 주절에 내포되어 번역되는 경우로 39개중에서 4개
(10.3%)가 발견되었고 명사 ‘-(할) 때’를 이용(3개)하거나 종속절을 주절
내에 위치한 수식의 형태로 번역(1개)하였다.

3.2.3 종속절이 주절에 내포된 형태

마지막으로 종속절이 주절에 내포된 형태로 108개 중 3개(2.8%)가 나타
났으며 번역 방식은 100% 중간에 삽입된 종속절이 먼저 나타난 형식이었

다.

<표 6> 종속절이 주절에 내포되어 번역된 유형 및 빈도

종속절-주절	주절-종속절	종속절이 주절에 내포
4개 (100%)	0개 (0%)	0개 (0%)

번역 방식은 문장 어순과는 다르게 ‘종속절-주절 어순번역’ 한 가지 형태만이 나타났다.

(52) a. ...cutting privileges when he didn't gain weight was "counterproductive" and "demoralizing".

b. 체중이 불지 않는다고 여러 가지 벌칙을 가한 것 역시 “역효과”를 불러 환자의“사기 저하”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Reader’s Digest 101: 20)

(53) a. ...Field explains when we surface, it contains fewer nutrients for the coral.

b. ...수면에 떠오른 필드는 그 물에는 산호의 생존에 필요한 영양분이 별로 없다고 설명해준다. (Reader’s Digest 100: 82)

번역 방식은 총 3개중 예문(52)처럼 어미를 이용한 경우가 2개이고, 예문

(53)처럼 관형절 형태로 수식한 경우가 1개로 나타났다. 여기에서는 종속절이 주절 사이에 들어있지만 종속절을 먼저 해석하려는 한국어의 특징에 따라 문맥에 적절히 맞추어 연결 단어를 선택하여 매끄러운 의미 전달을 시도하였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영어의 주절-종속절어순에서 그 번역의 형태를 정리해보면 다음 3가지로 나타났다. 분석 문장108개 중에서 영어의 종속절-주절어순인 경우가 66개(61.1%), 주절-종속절어순인 경우가 39개(36.1%)이고 종속절이 주절에 내포된 경우가 3개(2.8%)로 나타났다. 영어의 문장을 한국어로 자연스러운 번역을 하기위해서 ‘어미이용, 명사이용, 관형절이용, 부사이용, 생략’등이 발견되었다. 그중에 영어의 주절-종속절 어순에서 주절을 먼저 한국어로 번역 할 경우 어려움이 따른다. 한국어는 주절이 종속절보다 후행하는 언어이기 때문이다. 이때는 명사를 이용할 때 시간적 의미를 나타내는 ‘-(할) 때’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번이형인 ‘순간, 그날, 그때’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부사를 이용하여 번역을 하거나 when을 따로 번역 상당 어구를 이용하지 않고 주절과 종속절을 따로 분리하여 두 개의 문장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IV. 결 론

본 논문은 Reader's Digest 영한 대역 본 3권을 언어 자료로 삼아 시간접속사 when이 들어 있는 부사절 형태의 종속절이 영한 번역시 어떤 방식이 좀 더 자연스러운 의미가 되는지를 조사하고, 영어 문장의 정보성에 따라 한국어로 번역시 어떤 어순으로 되는지를 비교·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로 when의 번역 상당 어구에 따른 분류를 정리해보면 연구 대상인 108개 중에서 어미(48개)와 명사(48개)를 이용한 번역이 빈도수가 높았다. 어미를 이용한 경우는 10가지가 있지만 '-자(18개)'와 '-면(14개)'이 48개 중 32개(66.7%)로 다수 높은 빈도수를 보였고, 나머지 '-며(면서), -는데, -고, -니, -다가, -아서, -어서, -여야' 등은 그 사용 빈도수가 낮게 발견되었다. 명사를 이용한 경우는 6가지가 있지만 '-(할) 때'의 의미가 전체 48개 중 43개(89.5%)로 아주 높은 빈도수로 나타났다. 그 이외에 명사에는 변이형으로 '순간, 경우, 무렵, 그날, 그때'가 발견되었다. 또, 관형절로 번역(9개), 부사로 번역(2개), 그리고 생략(1개)의 형태가 발견되었다.

둘째로 영어의 주절-종속절 어순에 따른 분류를 정리해보면 연구 대상인 108개 중에서 종속절-주절 어순이 66개(61.1%), 주절-종속절 어순이 39개(36.1%), 그리고 종속절이 주절에 내포된 형태가 3개(2.8%)로 조사되었다. 영어의 주절-종속절 형태가 한국어로 번역시 종속절-주절어순번역(61.5%)이 주절-종속절어순번역(28.2%)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

는 종속절을 선행해서 번역하려는 한국어의 특징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영어의 when종속절-주절의 한국어 번역은 크게 어려움이 없으나 주절-when종속절은 단순히 문장 단위에서 통사적인 면을 중심으로 번역할 경우 바람직하지 못한 번역문이 생성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문장의 통사적인 면뿐만 아니라 해당 문장의 정보 구조와 담화 기능을 파악해서 번역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병렬언어자료

- 「Reader's Digest」 100집(2009년 9월-10월). 서울: 두산동아(주).
- 「Reader's Digest」 101집(2009년 11월-12월). 서울: 두산동아(주).
- 「Reader's Digest」 102집(2010년 1월-2월). 서울: 두산동아(주).

참 고 문 헌

- 남광우, 이응백, 이을환. 1991. 「국어 대사전」. 서울: 민중서관.
- 「동아새국어사전」. 2000. 서울: 두산동아.
- 박갑수. 1998. 「일반국어의 문체와 표현」. 서울: 집문당.
- 임홍빈, 장소원. 1999. 「한국문법론I」. 서울: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 장경희. 1999. “바른글쓰기”. 「새국어생활」 9.4, 65-88.
- 정희자. 1999. 「담화와 문법」. 서울: 한신문화사.
- 조인정. 2005. “영한 번역의 어순 문제: 이유·원인 부사절”. 「이중언어학」
28, 356-369
- Bardovi-Harling, Kathleen. 1990. Pragmatic Word in English Composition. In Connor, Ulla and Johns, Ann M. (eds.) *Coherence in Writing: Research and Pedagogical Perspective*, 43-65. Alexandria, Virginia: Teachers of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

Biber, Douglas, Stig Johansson, Geoffrey Leech, Susan Conrad and Edward Finegan. 1999. *Longman Grammar of Spoken and Written English*. Edinburgh Gate: Pearson Education Limited.

Chafe, Wallace. 1984. How People use Adverbial Clauses. *The Proceeding of the Tenth Annual Meeting of the Berkeley Linguistics Society*, 437-449.

Ford, Cecilia. 1993. *Grammar in Interaction: Adverbial Clauses in American English Convers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Givón, Talmy. 1984/1990. *Syntax: A Functional-Typological Introduction*, Vol. 2. Amsterdam: John Benjamins.

Longman English-English-Korean Dictionary. 1996. 서울: 금성교과서(주).

Newmark, Peter. 1988. *A Textbook of Translation*. New York: Prentice Hall International.

Ramsay, Violeta. 1987. The Functional Distribution of Preposed and Postposed "if" and "when" Clauses in Written Narrative. In Tomlin, Russell S. (ed.). *Coherence and Grounding in Discourse*, 383-408. Amsterdam: John Benjamins.

Thompson, Sandra A. 1987. Subordination and Narrative Event

Structure. in Tomlin, Russell S. (ed.). *Coherence and Grounding in Discourse*, 383–408. Amsterdam: John Benjamins.

Thompson, Sandra A. and Robert E. Longacre. 1985. Adverbial Clauses. In Shopen, Timothy (ed.).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Vol. 2, 171–234.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